

# 광주시, 행정통합 '잔걸음'

## 실무추진단 구성...정치·시민단체 다자 논의 나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추석 회동 통해 공식화 될 듯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대적 과제"라며 공식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광주시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다자 논의에 나서는 등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남은 추석 이후 직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2일 본청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람있는 일로 지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공감을 우선 얻어야 한다"며 행정실무와 공론화 작업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토론회에서 첫 제안이 이뤄진 후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소홀할 없는 준비"를 지시한 지 꼬박 1주일 만이다.

이를 위해 김종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가칭)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구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등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문가 의견이나 특장 등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학습모임 등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을 주문했다.

행정작업과 별개로 이 시장은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24일 광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와 5개 구청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통합의 필요성과 찬반 의견을 듣고, 25일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마지막인 10월3일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제안한 광주시장·전남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간 4차 회동에도 참석해 시·도통합 제안 배경과 필요성, 필요한 절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통합 제안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의 첫 만남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 만나서 것 보다 여론수렴과 실무자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의견을 이남재 정무석보좌관을 통해 전남도에 전달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추석 이후 회동을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자립도시, 인구소멸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공동체로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두가 던져진 만큼 이전 서두르지 않되 중단도 하지 않도록 각계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오랜 논의 끝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전과 세종, 부산·울산·경남이 통합을 논의하는 등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광주, 전남의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힘이 들지만 가슴 벅찬 일"이라며 "우리의 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 갈 것"을 당부했다.

# '여야 국회의원 19명 참여'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

## 서삼석 대표의원 "체계적 조사·연구·정책수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법률안 제·개정 등 섬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익 의원의 사회로 대표위원의 개회사와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소개, 전국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등을 하나로 엮은 동영상 상영을 시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섬 주민들의 동영상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안개로 인한 결함 개선, 해양쓰레기 문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 요양시설 건립, 여객선 요금 인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길 요청하

는 목소리가 높았다.

섬발전연구회 서삼석 대표의원은 "섬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의 가치는 영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의 국가들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섬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섬 유형별로 다원화된 섬 관리체계로 섬 정책 추진 및 성과관리,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통합적인 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섬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섬발전연구회'에는 대표의원인 서삼석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익 의원, 민주당의 김태연·이인영·김승남·백혜련·송재호·주철현 의원, 국민의힘의 김태홍·이달근·하영재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추석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안내·예방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정당 명의 현수막 게시  
인사장 다수 발송 행위  
귀향버스 무료 제공 등  
유권자 금품 제공받을 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구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거관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승호 기자

## 동구행복재단, '주민소통' 공식 유튜브 TV 개설

광주 동구행복재단은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공식 유튜브 계정인 '동구행복재단 TV'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동구행복재단 TV' 채널은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문화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등 동구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안내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유관기관들이 임시 휴관인 점을 감안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비대면 문화콘텐츠 강좌'를 구성해 게시할 예정이다.

## 서구, 어려운 지역경제 상생장터로 극복 노력

광주 서구는 오는 24일 청사 로비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지역 생산품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기업과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을 펼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해 자활기업, 지역농가, 나들가게, 마을공동체 등 18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 남구, 추석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광주 남구는 2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추석 명절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이다.

또 원산지 표시제 대상인 쌀을 비롯한 미곡류와 잡곡류, 특용 작물류, 과일, 과채류, 과실류 등 651개 품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 북구, 코로나19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광주 첫 도입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청사 출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북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이어 광주에서 처음으로 '안심콜(CALL) 출입관리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청사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길면 전화번호와 시간 등 통화 기록이 전산 서버에 남고 4주간 보관 후 폐기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어려움이 있고 수기명부 작성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있었다.

## 광산구, 공직자 온라인 행복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산을 바꾸는 시간 행복수업' 교육과정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에게 구정 핵심 가치인 '행복' 마인드를 함양하고, 구 행정정책 구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집합 교육 형태로 계획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됐다.

교육은 '사람은 언제 행복인가?'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말과 행동들' '광산구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방향' 3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는 신지는 전남대 교수, 김경일 아주대 교수, 이재경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원이 각각 맡았다.

임행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해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영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1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6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www.nhis.or.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